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67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가치를 더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2023년 10월호



경관조명을 밝힌 소양강댐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67

2023년 10월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에너지로
가치를 더하는 소양강댐,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양강댐50주년



kwater__official

#kwater소양강댐희망의미래로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소양강댐희망의미래로를 검색하고 <#kwater소양강댐희망의미래로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소양강댐희망의미래로를 검색 → <#kwater소양강댐희망의미래로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10월 20일
선물 발송일 11월 10일경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디지털전환



#국민안전



#그린수소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10 | Vol. 667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 관련 특집호로 발간됩니다.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통 권 667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큐라인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8 제로여행
소양강을 벗 삼은 호반의 도시 강원 춘천

14 제로픽
오감이 열리는 춘천 에코투어리즘

16 CEO와 함께하는 열린 소통
윤석대 사장 취임 100일 기념 'CEO와 함께하는 열린 소통' 현장을 가다

20 지구보고서
'뚜렷한 사계절' 무색해져가는 우리나라의 계절

22 친환경 지구여행
라스베이거스를 성장시킨 후버댐 이야기

26 두잇두잇
K-water 동호회 농구부가 알려주는 스포츠의 정석

28 건강처방전
무시무시한 가을철 쯤쯤가무시

30 수(水)타백스가 간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소양강댐지사와의 만남



34 댐의 재발견
소양강댐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36 K-water 리포트
소양강댐의 새로운 시작, 희망의 미래로!



40 K-water ESG
말레이시아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발걸음

42 어느 멋진 날
나와 우리를 지키는 힘,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46 마음상담소
출근만 생각하면 숨 막히는 나, 혹시 불안장애일까?

48 오프챌린지
무해한 하루를 만드는 쓰레기 OFF

49 이슈체크
즐겁게 건강해지기, 헬스 플래저



50 K-water 포커스 ①
수도요금 동결로 국민 부담을 줄입니다

52 K-water 포커스 ②
그린수소 생산의 첫걸음을 떼다

54 K-water News

56 수놓은 문화

62 챌린지 릴레이

64 K-water SNS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소양강을 벗 삼은 호반의 도시

강원 춘천

춘천의 이름은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봄내'라 읽는다. 봄 춘(春) 내 천(川)자를 썼다. '봄이 오는 시내'란 예쁜 이름이다. 가을이든, 겨울이든 춘천은 늘 봄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청춘의 이미지를 지녔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소양강 곁에 우리들의 오랜 추억과 낭만이 흐르기 때문일까.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소양강에 담긴 오랜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춘천 여행.

글: 최갑수(여행작가) 사진: 최갑수, 춘천시청 일러스트: 이신혜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80세에 시집을 내 주목을 받은 시인 유안진이 쓴 작품 중에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라는 시가 있다. 춘천(春川)은 한자 표기에 서도 볼 수 있듯 '봄 춘(春)' 자를 사용하고 있다. '봄이 오는 시내, 봄의 고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가깝다. 봄이 와도 봄을 느끼기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 춘천(春川)이라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유안진 시인이 춘천을 보며 봄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입추가 지나 도착한 춘천의 새벽녘 소양강은 피어오르는 물안개로 장관을 이루었다. 가만 보며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의 '사랑해 마지막을 꿈속의 여인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이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4050세대에는 대학 MT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어쩌면 첫사랑의 추억이 담겼을 테고, 2030세대에는 레트로 감성이 한 스펀 담긴 여행지로 통하는 춘천. 오랜 시간 낭만의 도시, 봄의 고향이란 로맨틱한 별칭으로 불리는 것이 춘천이 갖고 있는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소양강 안개 속 자리한 몽환의 도시

춘천은 안개의 도시로도 불린다. 연중 250일 이상 안개가 피기 때문이다. 새벽녘이면 소양호와 의암호, 춘천호에서 쏟아져 나온 물안개가 도시로 밀려든다. 1970~80년대 청춘을 보낸 중년들이 춘천을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로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아

마도 춘천의 안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역에 내린 연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몽환 같은 안개 속으로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으리라 상상해 본다. 열게 미소 짓는 재미있고 설레는 상상이 아닐까. 춘천은 그런 도시다. 젊음을, 청춘을 상상케 하는.

총주호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큰 호수로 꼽히는 곳이 바로 소양강이다. 지금은 소양강댐으로 대중에게 더 잘 알려졌지만, 한때 소양호에는 양구와 인제까지 다니던 배가 있었다. 겨울 속초나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내설악의 코양까지 다다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을 태우고 10분 내외로 청평사까지 가는 유람선만이 오간다.

소양강의 거대한 담수량이 만들어 내는 안개는 두텁다. 일교차가 큰 가을 무렵이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충분히 피어오르는 안개 속으로 물오리가 떼를 지어 유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이런 꿈결 같은 풍경은 오직 춘천에서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안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소양5교로, 이곳에는 전망대도 있다. 11월이 되면 상고대를 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호수 옆 비포장도로로 사진작가들이 가득 줄짓는다.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사금파리처럼 뿌려지고 우윳빛 안개가 피어오르면, 햇살과 안개가 뒤섞여 호수는 어렵פות한 풍경을 연출한다. 가을 녘 춘천에 들른다면 이 풍경을 놓치지 말 것. 숨겨진 비경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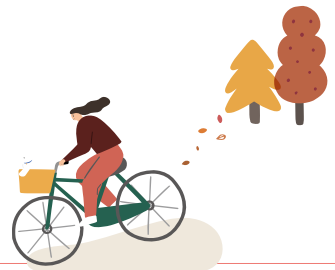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지 이야기



공지천 유원지

북한강과 이어지는 지방 하천인 공지천은 춘천을 대표하는 도심 속 휴식처다. 잔잔히 흘러가는 공지천 양쪽으로 공지천조각공원, 의암공원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췄으며 공지천교와 그 아래 보행교를 통해 물길 양쪽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계절별로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해 사계절 인기다.

주소 강원 춘천시 근화동 690-1



소양강 처녀상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소양강 전경

청평사에 깃든 지독한 사랑

운치 가득한 소양강 뱃길은 사라져 버렸지만, 소양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구불구불한 길은 남아있다. 오봉산 자락의 배후령을 타고 넘어가는 호반 도로가 바로 그 길이다. 이 길을 구불거리며 따라가면 청평사에 닿는다.

고려 때(973년) 세워진 이 천년고찰은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사로 유명하다. 주차를 하고 나서 절까지 약 2km의 길이 이어진다. 울울창창한 숲길이 이어지는데 절도 절이지만 절까지 이르는 이 숲길이 여간 운치 있고 좋은 것이 아니다. 청평사를 찾는 연인들은 배를 타고 이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제법 근사한 데이트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절에는 지독한 사랑 이야기마저 깃들어 있으니, 연애를 복돋우는데도 더없이 좋겠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옛날 당나라 태종에게 어여쁜 공주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공주를 짝사랑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그 청년이 평민이었다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다.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총각은 상사병에 걸렸고, 왕은 청년을 죽인다. 하지만 죽어서도 공주와 함께하겠다는 총각은 상사병으로 환생해 공주의 다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공주가 아위어가자 부처님에게 빌어보기로 하고 발길이 닿은 곳이 고려의 청평사다. 밤이 늦어 동굴에서 노숙하고 이튿날 잠깐 불공을 드리고 오겠다는 공주의 말에, 어찌 된 일인지 뱀은 10년 만에 떨어져 주었다. 하지만 기다리다 조바심이 난 상사뱀은 공주를 찾아 절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청평사 회전문 앞에서 벼락을 맞고 폭우에 떠밀려 죽고 말았다.



청평사

청평사 회전문은 상사뱀이 돌아나갔다고 해서 회전문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름이 회전문이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문을 생각하겠지만 청평사 회전문은 '回轉門'이 아니라 '廻轉門'으로, 회전(廻轉)은 윤회전생(輪廻轉生)의 줄임말이다. 오래전 첫사랑과 같이 춘천에 깃든 옛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면, 공지천의 에티오피아 참전비 옆에 들어선 '이디오피아'의 집을 기억하라.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 옆에 들어선 이 카페에서는 당시만 해도 흔히 맛볼 수 없는 원두커피를 내놨다. 이곳은 1968년 개업 이래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공지천을 유유히 거닌다. 의암호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풍경이다. 오리배가 무심하고 한가롭게 흔들린다. 낙엽이 떨어지는 수면은 간간히 파문을 일으킨다.

한국 소설의 거장 김유정의 흔적

김유정은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한국 문학사에 깊고 진한 발자국을 남겼다. 그의 고향이자 다수 작품의 배경이 된 신동면 증리(실례마을)에 김유정문학촌이 조성되었다. 생가와 전시관, 연못, 동상 등이 있는데 천천히 걸으며 돌아보기 좋다. 문학촌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김유정역이 나온다. 원래 이름은 신남역인데, 김유정문학촌이 만들어지면서 김유정역으로 바꿨다. 김유정역 바로 옆에는 옛 기차역이 있다. 옛날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역이라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으니 꼭 둘러보시길.



김유정역

저녁 무렵에는 소양강스카이워크로 발길을 돌려보자. 스카이워크는 비교적 근래인 2016년에 생긴 새로운 명물로, 투명한 바닥 구조물이 인상적이다. 마치 소양강 위로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특히 저물 무렵,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답다.



의암호

호수 면적 17km², 너비 5km, 길이 8km, 춘천시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삼악산(三岳山) 계곡 국도변에 있는 인공호수다. 춘천이 호반의 도시라 일컬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의암호 조성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원형의 호수 풍경은 춘천시와 삼악산의 풍치와 잘 어울려 인공호라기보다 자연호의 정취가 느껴질 만큼 아름답다.

☞ 주소 강원 춘천시 서면

찾아가GO. 체험하GO
소양강댐의 탄생지. 춘천 여행 스폿

kwater.or.kr/for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에코스텝 1 (물레길)

춘천 물레길은 에코투어리즘을 표방한다. 카누를 타고 자연 그대로 보전된 강과 호수를 즐기며 자연이 주는 낭만, 여유, 행복을 찾아 여행한다. 잔잔한 푸른 물결과 철마다 꽃과 나무의 싱그러움 변화가 가득한 산세, 그림 같은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유유자적 뱃놀이를 즐기며 자연에 녹아든다.

에코스텝 2 (국립춘천숲체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춘천숲체원은 실내 암벽장과 놀이터, 자전거숲 등 다양한 산림레포츠와 교육, 숙박 등 다음 세대에 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오감이 열리는 춘천 에코투어리즘

강과 강이 만나 호수를 이루고 웅장한 산세가 더해져 아름다운 풍광을 조우할 수 있는 춘천. 춘천을 대표하는 소양강을 따라 오감으로 만나는 에코투어리즘을 떠나보자.

글. 우수정 사진. 춘천시청,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1

09:10 a.m

가을의 식물 생태와 꽃내음이 가득한 곳

춘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15여 분을 이동하면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에 도착한다. 이곳은 사계절 중 가장 화려한 가을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울긋불긋 곱게 물든 나무와 꽃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은 1999년 개원하여 1,827종류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기후변화 취약 식물을 보존하는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하다. 숲해설가를 따라 화목원을 탐방하며 자연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과 나무를 활용한 소품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도 진행하니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자. 화목원 내에는 곤충의 생태계와 전시, 강원도 산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산림박물관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하기도 좋다.

강원특별자치도립화목원
주소 강원 춘천시 화목원길 24
전화번호 033-248-6685
운영시간 09:00~18:00(동절기 17:00까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소양강의 물길을 걷다
화목원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호반의 도시, 물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의 매력을 탐방할 차례다. 춘천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소양강 7.5m 높이 위에 수면이 비치는 강화유리로 만든 다리로 전체 길이가 무려 174m에 달한다. 발아래로 푸른 물빛이 비쳐 마치 강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보기만 해도 아찔함을 느끼며 다리 끝까지 걸음을 옮기면 원형 광장이 나온다. 탁 트인 전망의 광장에 잠시 머물며,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자. 광장 맞은편에는 '쏘가리 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있는데 시간에 맞춰 분수가 뿜어져 나온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입구 옆에는 소양강을 대표하는 소양강처녀상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남겨봐도 좋겠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주소 강원 춘천시 영서로 2663
전화번호 033-240-1695
운영시간 10:00~21:00(동절기 18:00까지)

2
11:45 a.m



하중도수변생태공원 주소 강원 춘천시 중도동 650-2

수변을 따라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공원
소양강스카이워크 체험을 마치고 춘천역 인근에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다면 자전거를 빌려 하중도수변생태공원으로 떠나보자. 자전거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춘천대교를 건너 하중도에 위치한 레고랜드 방향으로 내려오면 공원에 다다른다. 하중도수변생태공원은 의암호의 절경을 가장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연 속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곳곳에 쉼터와 의자, 테이블이 있어 편안하게 쉬어가기 좋으며 산과 호수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액자 모양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라이딩이 어렵다면 하중도수변생태공원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공원 한쪽에는 나무 데크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수풀이 우거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전거로 공원을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3
14:00 p.m

“여러분은 더 큰 세상을 향한 인재! 어떤 경험도 나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삼길”

윤석대 사장 취임 100일 기념 ‘CEO와 함께하는 열린 소통’ 현장을 가다



ICE BREAKING

윤석대 사장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는데요. 우리 편하게 합시다.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 즐거운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방문 때 보았던 얼굴도 있고 오늘 처음 보는 직원도 있는데,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생각과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루키 사장님과의 만남이 한껏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떨리기도 했는데요. 유쾌하게 대화를 시작해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사장님께 일주일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윤석대 사장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비행기를 타야지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일에 도전하며 다양한 조직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 **빈 시간이 생길 때면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라오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라오스행 비행 노선이 처음으로 생긴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 한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라오스 북부의 시골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던 기억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탁 트인 풍경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겠다는 열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400시간. K-water 윤석대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이후 홍수기 대응, 수해 지역 지원, 현장 점검 등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온 윤석대 사장이 K-water의 미래를 책임질 15명의 ‘슈퍼루키’를 만났다. 열정 가득한 루키들의 질문과 애정 가득한 윤석대 사장의 답변, 그 안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고, 세계를 향해 뻗어갈 K-water의 빛나는 미래가 담겨 있다.

글. 박향아 사진.김은주

슈퍼루키 저도 조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휴대폰 배경화면이 궁금합니다!**

윤석대 사장 한번 볼래요? **우리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 늦둥이 아들의 사진이에요.** 취임식 날 함께 참석했었죠. 참고로 우리 아내의 핸드폰 배경에는 아들 사진만 있어요.(웃음)

슈퍼루키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고 나니, 한결 더 친밀해진 느낌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슈퍼루키는 입사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15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MZ 세대’인데요. **혹시 MZ세대에게 세대 차이를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윤석대 사장 많죠.(웃음) 좀전에 얘기한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빠,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대와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도 다르고,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러니 세대 간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루키 그럼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윤석대 사장 젊은 세대에게 딱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의욕, 열정’을 가졌으면 해요.** 저는 ‘내게 주어진 일, 더 나아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보람도 있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슈퍼루키 사장님의 말씀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돌려서 드리겠습니다. 과거 신입 시절에 ‘저런 모습은 닳지 말아야지’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모습이 있으셨나요?**

윤석대 사장 누구나 그런 경험 한번쯤은 있지 않겠습니까? 말투나 행동에 상대를 무

시하는 태도가 배어 있는 상사, 일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지만 휴식 없이 일만 강요하는 상사, 상대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말만 길게 하는 상사 등을 겪으면서 배운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에 역지사지가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상사를 만났어도 불평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일입니다.



슈퍼루키 사장님께서 곧 취임 100일을 앞두고 계신데요. 외부에서 바라본 K-water의 모습과 직접 느끼신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윤석대 사장 '여러 공기업 중 하나!' 제가 그동안 K-water에 갖고 있던 이미지는 딱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취임 후 100일을 보낸 지금, '조금 아깝다'는 것이 저의 달라진 생각입니다. 진심입니다. 취임 후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성원들을 만나고 나니 우리 만한 인적 구조, 재무 여건, 독자적인 사업과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 없더라고요. 이대로 두기에는 아까운 기업이라는 생각과 함께, 삼성하면 반도체를 떠올리듯, K-water를 글로벌 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임기 동안 완벽한 결과

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내가 초석은 깔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선 우리는 공기업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우리 K-water,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 임기 동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슈퍼루키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말 많은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보고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윤석대 사장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두 장 분량의 보고서가 있으면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2줄도 안 되는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추후 서면으로 확인해도 되는 내용이나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요. 보고를 받다보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 온 내용이 다 읽어야 해!'라는 강박관념을 느끼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서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고는 상대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요점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고하는 사람이 아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할 때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슈퍼루키 작년에 입사한 1년 차 신입 사원인 저는 회사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요. 저희 루키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윤석대 사장 최근 현장 부서 방문 때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누군가는 그 중 나랑 친한 한 두 사람의 부탁만 들어주고, 누군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어디까지나 '부탁'이니 꼭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후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열 사람의 부탁을 모두 들어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열 사람 중 두 명 정도는 오히려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주지?'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6~7명은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만분의 도움을 주었을 때 100만분의

가치로 돌려주는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은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큰 힘이 돼요. 이런 태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이제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 갓 발을 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조금 먼저 걸어간 선배의 마음으로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얘기가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회사 운영에 관한 내용도 괜찮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생각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큰 조직이 움직이려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어 K-water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오늘 같은 소통의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LOOK BACK ON



SUPER ROOKIE MINI INTERVIEW

※ 슈퍼루키(관장) 직원이나 그들 중 임사 5명차 이하의 4~5급 상임 직원을 모 구성



이상혁(평화의담지사, 2021년 입사)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 두고두고 생각날, 소중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떤 경험이란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이니,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윤석대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우리에게도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는 신입사원으로서, 저 역시 많이 배우고 성장하며 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겠습니다.



김승예(부산권지사, 2020년 입사)

오늘 윤석대 사장님께서 유연한 사고와 유머가 묻어나는 화법으로 뚜렷한 주관을 말씀해주셨는데, 마치 인생의 대선배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후회 없이 모든 열정을 쏟아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윤석대 사장의 말씀처럼, 입사했을 때의 초심을 되살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우정(주암담지사, 2020년 입사)

순천에서 3시간을 운전해서 오는 동안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슈퍼루키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움과 뿌듯함만 가득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주춧돌을 마련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더 큰 세상을 향해 꿈을 키우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뚜렷한 사계절’ 무색해져가는 우리나라의 계절

글. 박상욱 JTBC 기자

이제 ‘9월의 폭염주의보’는 일상이 된 듯합니다. 입추(8월 8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는 고사하고 처서(8월 23일,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와 백로(9월 8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 추분(9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함)에 이르기까지 ‘가을이 오긴 한 것인가’ 의문이 들 만큼 절기의 도래가 무색했죠. 이유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 ‘끓는 지구’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월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초등교육 때부터 주입된 한반도의 특징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상황입니다. 계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평균 기온이 20°C 이상으로 올라

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이 여름의 시작일입니다. 가을은 ‘일평균 기온이 20°C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이 시작되고요.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C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부터, 봄은 ‘일평균 기온이 5°C 이상으로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입니다.

이런 기상학적 계절 구분에 따르면, 이미 우리의 계절은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1981~1990년, 113일이던 여름일수는 2011~2020년에 이르러 127일로, 총 2주가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의 겨울은 102일에서 87일로 보름이나 짧아졌죠. 연중 3달 넘는 시간이 여름이고, 겨울은 석 달도 채 안 되는 게 요즘 사계절 사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41~2060년 부산과 제주에서는 겨울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2081~2100년이면 부산과 제주뿐 아니라 경남, 울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도 겨울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계절이었던 시절은 가고 ‘덥거나, 춥거나’
또는 ‘덥거나, 덜 덥거나’로 변해가는 겁니다.*

당장 올해 10~11월, 장기에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덥거나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젠 그리 놀랍지도

않은 전망입니다. 지난 7월 3일, 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7.01°C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은 연일 깨졌습니다. 지난 10만 년의 시간, 아무리 뜨거워도 북극부터 남극까지 전 지구의 기온 평균값이 17°C를 넘어선 일은 없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17°C를 웃돌기 일쑤였죠. 게다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온이 평년보다 1.5°C 넘게 뜨거워지는 ‘엘니뇨’가 적어도 겨울까지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APEC 기후센터는 9~11월 동아시아 계절 전망에서 한반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80% 이상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도와 관련한 지표 대부분은 ‘차가움’보다
‘뜨거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을 전망 중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단 하나,
바로 강수 전망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게 비가 온다고
하니, 지난해 ‘역대급 가뭄’을 겪은 상황에서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지요.*

물론, 온난화가 부르는 문제점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는 ‘극단적인 변동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난 2021년 10월 중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갑작스레 ‘11년 만의 10월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처럼 말이죠. 뜨겁게 달궈진 지구로 북극 한기를 잡아두는 한대전선 제트기류, 일명 ‘북극 제트’가 느슨해진다면, 북쪽의 찬 공기가 언제든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기상 예측이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온난화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끓는 지구의 시대(Era of global boiling)’의 도래를 선언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지난 발언을 살펴보면,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달 지구보고서를 마칩니다.

“문순 폭우에 휩쓸려 간 아이들,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가족들, 무더위에 쓰러진 노동자들… 북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지구 곳곳에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재앙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모든 것은 그간의 예측, 그리고 반복했던 경고와 일치합니다. 유일하게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뿐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고작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변명할, 남들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고, 최악의 기후변화를 피하는 일은 극적이고도
즉각적인 기후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만큼,
우린 더 빠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소양강댐을 짓던 노동자들로 인해 향토 음식이 생겨나고 관광지로 거듭난 춘천처럼 미국에도 댐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이 있다. 미국 모하비 사막 위에 세운 라스베이거스의 시발점인 후버 댐 이야기다. 댐 건설 노동자들이 여가를 즐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으며 카지노와 호텔이 생겨났고, 후버댐이 물과 전력을 공급하며 휘황찬란한 라스베이거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양강댐의 이야기와 닮은 후버댐이 만든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보자.

글 사진_우지경(여행작가)

라스베이거스를 성장시킨 후버댐 이야기



미국 서부의 오아시스, 후버댐

후버댐은 경제 대공황 시기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실업난 극복을 위해 펼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아치형 댐으로 알려져 있다. 1931년부터 5년에 걸쳐 약 2만 1,000명으로 인력을 투입해 완공했으며 콜로라도 강의 블랙 협곡을 막아 건립한 중력식 댐으로, 높이 221m, 길이 411m에 이른다. 후버댐 건설로 길이 180km, 최고 깊이 162m의 미드호(Lake Mead)도 함께 탄생했으며, 저수지 용량은 약 320억 톤에 이른다. 후버댐 전망대에 오르면 협곡 사이를 가로지르는 콜로라도 강 물길과 미드호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콜로라도 강 위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를 잇는 다리인 '마이크 오칼라한 팻 틸만(O'Callaghan-Pat Tillman Memorial Bridge)'의 규모도 압도적이다. 대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웅장한 풍경 그 자체인 것. 미국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의 경계에 위치한 후버댐은 댐 양쪽으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의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탑이 세워져 있다. 후버댐 위에서는 1시간의 시차가 나는 두 주의 시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셈이다. 후버댐 여행의 백미는 발전소 내부를 돌아보는 투어로, 거대한 수로의 일부인 파이프와 동력 발전기를 관망하며 후버댐 건설의 역사와 의미를 들을 수 있다.

밤이 깊을수록 아름다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주요 호텔들이 늘어난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화려한 거리다. 밤이 깊어져 갈수록 거리를 무대 삼아 자신만의 쇼를 펼치는 악사들이 하나둘 등장하며 거리 자체가 마치 커다란 공연장처럼 변모한다.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밤거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또 있다. 벨라지오 호텔 앞 인공 호수에서 펼쳐지는 분수 쇼와 미라지 호텔 앞에서 붉게 타오르는 화산 쇼가 바로 그것. 게다가 이 쇼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화산 쇼는 실제 불을 이용해 실감 나는 용암 분출을 만들어 내고 생생한 효과음이 특징이다. 한편 두바이 분수 쇼, 바르셀로나 분수 쇼와 함께 세계 3대 쇼로 꼽히는 라스베이거스 분수 쇼는 1,000개가 넘는 분수 노즐이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배경 음악이 매번 다른 분위기의 곡으로 바뀌므로 클래식한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분수 쇼를 감상하거나 흥겨운 팝의 비트에 맞춰 점점 고조되는 분수 쇼를 볼 수도 있다. 분수 쇼는 낮에도 물론 아름답지만, 색색의 조명이 더해진 밤에 감동이 배가된다. 단, 화산 쇼와 분수 쇼는 거센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 악화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후버댐





수십억 년에 걸쳐 생성된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헬기 투어로 그랜드 캐니언에 다녀올 수 있다. 그랜드 캐니언은 4억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흐르면서 만든 대협곡이다. 길이 446km, 폭 평균 16km,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1,740m에 이르는 협곡이 존재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다.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그랜드 캐니언을 “모든 미국인이 꼭 봐야 할 단 하나의 장관”이라고 극찬했다. 워낙 크고 광활해서 북쪽의 노스림, 남쪽의 사우스림, 동쪽의 이스트림, 서쪽의 웨스트림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석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웨스트림이다. 헬기 투어 시 웨스트림 협곡에서 삼페인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옐도라도 캐니언에서는 버기카와 ATV도 탈 수 있다. 헬기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면 웨스트림에 도착하는데, 가는 길에는 헬기 안에서 바라보는 후버댐의 전경이 호화찬란하게 펼쳐진다.



콜로라도 강 따라 블랙 캐니언 카야킹

블랙 캐니언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물길을 둘러보기 좋은 가장 방법은 카약이다. 카약을 타고 잔물결 이는 새파란 강 위로 지나면서 블랙 캐니언의 실루엣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패들을 저을 때마다 협곡을 울리는 패들링 소리를 들으며 물 위를 나아가다 보면 고대 인디언들의 정착지인 윌로 비치와 폭포, 에메랄드 동굴을 지나 좁은 협곡을 가로지르게 된다. 카약을 타는 동안 운이 좋으면 대자연 속에 살고 있는 큰뿔양과 대머리독수리, 코요테도 만날 수도 있다.



줄 서서 사진 찍는 라스베이거스 웰컴 사인

라스베이거스 여행이라면 누구나 찾아가는 곳이 바로 라스베이거스 웰컴 사인(Welcome to Fabulous Las Vegas)이다. 1959년에 세워진 이 사인은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기념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늘 붐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라스베이거스 불라바드 남쪽에 있다 보니 공항을 오가는 길에 꼭 들르는 인증샷 핫스팟으로 통한다.



라스베이거스 하이롤러에서 바라보는 전망

라스베이거스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다면 라스베이거스 거리 한복판에 우뚝 선 하이롤러를 타면 된다. 높이 168m의 대관람차로 28개의 커다란 캐빈이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데 30분이 소요된다. 하이롤러의 최대 탑승 인원은 1,120명. 캐빈 규모가 크다 보니 캐빈 내에서 웨딩, 파티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바 캐빈이 따로 있고, 대관람차 안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도 있다. 늦은 밤 하이롤러에서 바라보는 라스베이거스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해 질 녘에 맞이하는 라스베이거스의 선셋도 더할나위 없이 낭만적이다.



K-water 동호회 농구부가 알려주는

슛폼의 정석

올해,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리바운드>가 흥행하면서 한동안 농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다. K-water 동호회 농구부와 함께 슛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글_우수정 사진_김은주
영상_남건모(플러스메이커스)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역주행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는 주인공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은 도전정신이 농구를 더욱 매력적인 운동으로 보이도록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결성된 K-water 동호회 농구부는 이런 농구의 매력에 빠져 45여 명의 부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농구부는 2023년 환경부장관배 농구대회에서 우승하며 직장인 농구 동호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기술기획처 정혜민 과장은 해당 경기에서 MVP 최우수 선수로 꼽혀 K-water 농구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농구는 구기 종목 중에서도 속도감이 빠른 운동에 속한다. 축구나 야구에 비해 경기장

이 작고 득점 직후 바로 반격이 진행되므로 화려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중력은 물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체력증진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다른 운동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농구의 큰 장점이다. 별도의 장비 없이 농구 골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경기가 가능하기 때문.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직장인에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최고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소 활동적인 운동을 즐긴다면 정확한 슛폼을 배워 즐거운 건강한 취미생활을 즐겨보자. 농구를 배우고 싶은 초보자들을 위해 정혜민 과장이 세 가지 슛폼을 준비했다.



농구 초보를 위한 슛폼 꿀팁

농구부 정혜민 과장



뱅크슛

작은 사각형 모양의 백보드를 맞고 바스켓에 들어가는 슛입니다. 공은 사각형 안쪽보다는 가장자리 선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던져주세요. 팔에 힘을 주고 무조건 세계 던지기보다는 던진 공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백보드에 맞을 수 있도록 팔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유투

경기 중에 파울을 얻었을 때 넣는 슛으로 절호의 공격 기회입니다. 최대한 호흡을 가다듬어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바닥에 툭툭 하며 호흡을 하다 준비가 되면 슛을 합니다. 팔을 3점슛의 중간 정도 뻗었을 때 공을 위를 향해 던지면 됩니다.



3점슛

반원 형태로 그려진 3점슛 라인 밖에서 던져서 성공시키는 슛입니다. 팔과 손목을 끝까지 뻗어 공을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위쪽으로 높게 던진다고 생각하고 슛을 던지세요.



K-water 농구부는 직원들의 가입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정혜민 과장의 슛폼의 정석'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유행하는 병이 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유행하는 병 중 하나가 쯔쯔가무시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풀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라면 주의하자.

글. 문수민 자료. 질병관리청

무시무시한 가을철 쯔쯔가무시



풀숲, 개울가 방문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논밭에서 일할 때
긴 옷, 장갑 착용



풀밭 위에 바로 눕지 않기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는지 즉시 확인

가을을 대표하는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 병은 진드기티푸스, 뎀볼티푸스, 초원열, 잠목열 등으로도 불린다.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Orientia tsutsugamushi) 세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 사람의 혈액과 림프(액)를 통해 세균이 전신에 퍼져 발열과 혈관염을 유발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쯔쯔가무시 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가을에만 쯔쯔가무시에 걸리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풀밭에 눕거나 방치한 옷을 다시 입었을 때 털진드기가 사람의 몸으로 이동할 기회를 얻는 것인데, 주로 가을철에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 논밭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털진드기와 접촉이 잦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털진드기의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9~11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을철에 쯔쯔가무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한 해 발생률 중 90%를 차지한다. 10%는 반려동물에 의한 감염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쯔쯔가무시 병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리케차(Rickettsia, 리케차속 병원균에 속하는 세균) 질환으로서, 주로 우리나라 전역에 털진드기가 분포해 있어 발병률이 높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환자 발생 지역의 북방 한계선이 연간 8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변화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쯔쯔가무시 증상과 예방법

쯔쯔가무시 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3주로, 잠복기가 지나면 갑작스럽게 오한과 발열, 두통이 시작된다. 이어서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및 인후염이 동반되며 발진과 가피(피부 결손부에 생기는 권 조직이나 고름 등)가 나타난다. 타 질환과 확연히 다른 점은 간지럽지 않은 발진이 몸통에서 시작해 팔과 다리로 퍼진다는 것이다. 직경 3~5mm의 홍반성 반점으로, 1~2주가 지나면 소실된다. 또한 털진드기에게 물린 자리에 가피가 생겨나는데 이는 중요한 임상적 소견으로 작용한다. 이 외에도 40도가량의 고열, 전신쇠약감, 의식변화, 전신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털진드기는 개울가, 풀숲 등 숲이 무성한 곳에 잘 서식한다. 어쩔 수 없이 풀숲이나 개울가 등을 방문해야 한다면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한다. 논밭에서 일할 때는 되도록이면 긴 옷을 입고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 또한 풀밭 위에 바로 눕거나 옷을 벗어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앞서 이야기한 증상이 발현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소양강댐지사와의 만남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양강댐지사.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소양강댐지사에 힘을 보태줄 커피차가 도착했다. 잠시나마 분주함을 잊고 시원한 음료와 미술 공연에 매료되어,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얻은 소양강댐지사의 특별한 하루 속으로.

글: 구지희 사진: 김은주 영상: 이승규(플러스메이커스)





소양강댐 준공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023년,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 K-water 소양강댐지사는 댐 개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 리노베이션과 기념행사 등을 준비하느라 매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소양강댐지사는 박병국 지사장님, 관리부 이택수 부장님, 운영부 김도균 부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이 국민 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댐 운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운영부 변동민 과장의 말처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소양강댐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수(水)타벅스가 뒀다! 입추가 지난 지 한참이건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의 어느 날. 시원한 음료가 준비된 커피차를 받기며 하나 둘 미소를 띤 직원들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서로를 토닥이는 응원의 커피 한 잔

“올해는 정말 덥네요. 최근에는 소양강댐 상류에 녹조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느라 모두들 무던하도 애썼답니다.” 변동민 과장에 이어 이유진 사원, 권가행 대리, 이상환 사원도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오늘 참 더웠지만,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평소 일하느라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동료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세 잔이나 마셨어요! 청포도에이드, 유자에이드 모두 맛있었어요!”

한편, 변동민 과장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느라 참석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현재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현장 근로자분들이 많이 상주해 계십니다. 현장 근로자분들께도 시원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어서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지사가 운영하는 선박 선장님들이 오늘 점검 등으로 일이 바빠 오시지 못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여름 상류 수질 조사 및 녹조 제거로 고생하신 이도겸 선장님, 홍철호 선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50년을 꽃피울 소양강댐지사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든 직원들이 모이자, 고대하던 마술쇼 공연이 시작됐다. “우와. 신기하네. 이야. 저거 희한하네~” 신기한 마술에 연신 터지는 탄성! 직원들이 참여하는 마술은 특히 반응이 좋았다. “마술 공연은 처음인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술에 참여한

홍성재 대리가 말했다. 김진규 차장과 한서우 대리도 “오늘 특히 마술쇼가 재밌었습니다.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水)타벅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언젠가 저도 마술을 배워보고 싶네요.”라며 활짝 웃어 보인다.

마술 공연의 막바지에 이르자, 소양강댐 앞으로의 50주년도 활짝 피기를 기원하듯 마술사의 손짓에 따라 물 하나 없는 화분에서 장미꽃이 피어났다. “오늘처럼 우리 소양강댐지사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50년에도 소양강댐이 국민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했으면 하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 혁신을 이끌어냅시다!” 박병국 지사장의 소감을 끝으로 마술공연이 마무리되자 실내에는 소양강댐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소양강 처녀’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소양강댐의 새로운 50년이 시작될 것이다.

message.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미소 사원

관리부

10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내·외관을 꾸민 ITX 열차가 용산과 춘천을 오가며 운행 중이고요. 댐 주변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실 수 있는 슈퍼콘서트, 소양강댐 앞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례행사인 소양강댐 사면 개방도 올해는 더욱 특별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지사 편 보러가기



소양강댐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소양강댐의 변화가 반갑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로 가치를 더하며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소양강댐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한다.

글: 김영은 자료: K-water

1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양강댐의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4차 산업혁명데이터센터 설비 냉방에 활용한다. 수열에너지 도입으로 약 64%의 에너지와 CO₂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7,300명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효과와 2,37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연간 70억 원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2

소양강댐의 안전 및 성능 개선

보다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수로와 댐의 기초지반을 보강하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 및 수중드론, 디지털 트윈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수중드론을 통한 안전점검



3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경 공간의 변화

소양강댐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경관을 개선하여 국민 행복공간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댐 정상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변전소유 휴부지를 정원화하는 한편, 계절마다 다양한 색으로 별빛처럼 반짝이는 야간 조명을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 누리는 명소로 변화할 예정이다.



유휴부지 정원화 조감도

4

물 환경 개선

댐 주변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저수지 내 보호종 서식처를 개선 및 복원하고, 치어 방류와 휴탕물 저감 등을 통해 자연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치어 방류



5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양강댐

소양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세대 인재 육성 등을 위해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 방문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의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월호 E-book과
웹진에서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SOYANG GANG DAM

50 소양강댐 희망의 미래로!

지난 반세기동안 수도권권의 젖줄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온 소양강댐. 소양강댐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넘어,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한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펼친 소양강댐의 내일에 주목해보자.

글. 김영은 자료_K-water

소양강댐 50주년 특집 ② - 소양강의 미래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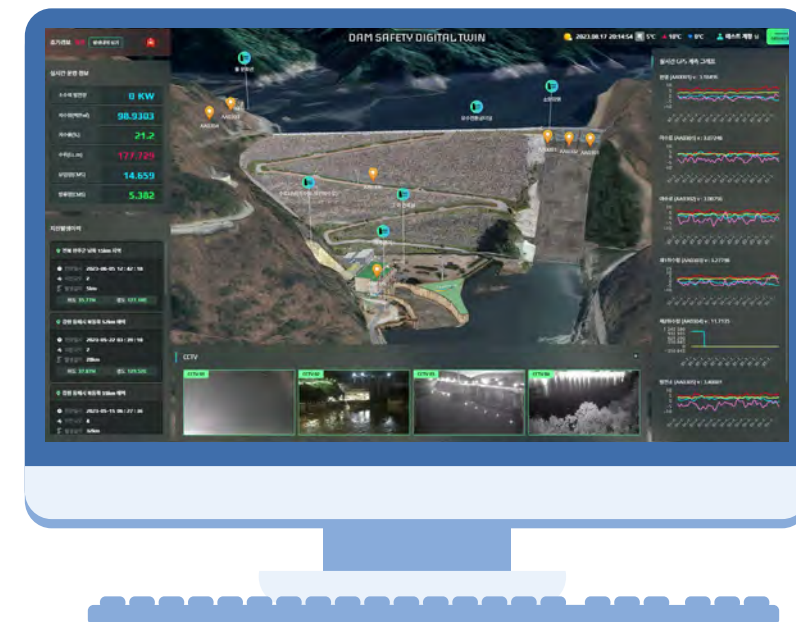
소양강댐의 새로운 시작, 희망의 미래로!

스마트 물관리의 요람으로 발전하다

1970년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의 초석이 된 소양강댐. 원활한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을 통한 재해 방지, 가뭄 극복 등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3년, 준공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 소양강댐은 스마트 물관리의 요람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의 빈도가 잦아져 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금, 소양강댐은 기존의 물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K-water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인 'Digital GARAM+(디지털 가람플러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Digital GARAM+'는 현실세계를 복제한 3차원 디지털 가상세계에 각종 물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홍수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이며, 섬진강 유역을 시작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 등 소양강댐을 포함한 5대강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확대하여 물관리 플랫폼을 통한 재해 예방과 홍수조절 기능을 더욱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으로 안전관리하는 소양강댐

*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동기화하여 사이버 공간에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 세계를 구현한 후, 각종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기술.



1. 드론 기반(항공 및 수중) 안전점검
2.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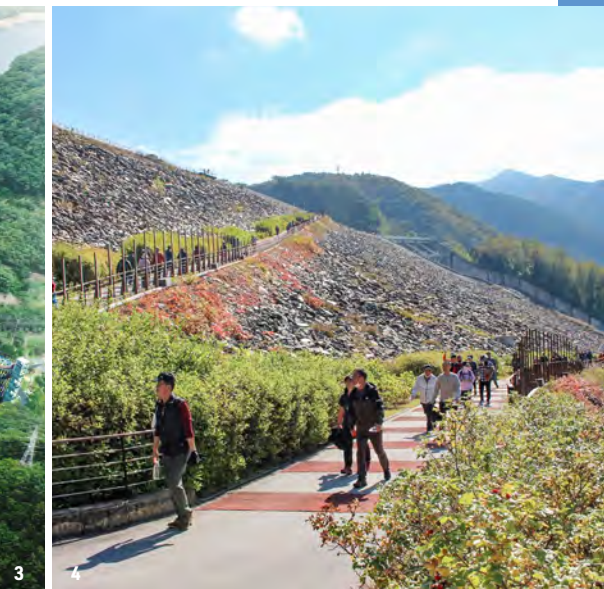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도약하다

소양강댐은 수력발전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K-water는 지난 2021년부터 소양강댐 심층수를 수원으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해 4차산업혁명 데이터센터 설비 냉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란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 온도보다 높은 댐호소수, 원수관로, 하천수 등의 수열원을 열펌프로 회수해 냉난방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소양강댐은 연중 7℃를 유지하는 차가운 물이 풍부해 수열에너지의 요충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3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 2023년 5월에 인허가를 마쳤다. 2027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한 후 2028년부터 2057년까지 30년간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과 스마트팜(첨단농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냉난방에 활용할 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지능형 감시(스마트 모니터링), 드론 기반(항공 및 수중) 안전점검, 댐 BIM 기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는 소양강댐을 포함 국내 37개 댐이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3. 소양강댐 종합 리노베이션 전경 조감도
4. 소양강댐 용너미길

획이다. 수열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팜의 냉난방에너지로 공급 시 화석 연료량의 64%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023년 10월 예정인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물산업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발전 인프라로 인식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의 성공적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대청댐 수열 클러스터 시범사업 기본 계획 수립 등 전국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하는 수열 기반 클러스터 조성 확대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모듈을 댐, 저수지 등 수면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상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자연훼손 없이 친환경적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성질 덕에 수면 위 냉각 효과로 땅 위에 설치한 태양광보다 약 5% 정도 높은 발전량을 자랑한다.

또 다른 50년을 이끌어가는 소양강댐

반세기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한 소양강댐. 이제는 전통적인 물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댐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이다. K-water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댐 및 주변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댐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민행복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댐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소양강댐 종합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광명소로서의 소양강댐이 제 역할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 공간디자인과 야간 조명을 개선하고 전망공간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댐 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보다 원활한 안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저수지 내 보호종들의 서식처 복원 및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K-water는 소양강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행사 연계나 문화관 콘텐츠 개선, 문화·체험행사 등을 통한 지역 상생 과제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K-water는 수물민들을 기억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지역 주민들의 추억을 기리기 위한 소양강댐 망향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투자로 물 문화관 1층에 수물지 기념관을 만들어 수물 전 옛 마을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기록물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다.

지난 50년 속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를 함께해 온 소양강댐은 리노베이션과 다양한 과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댐 관리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친 소양강댐의 미래 50년을 기대해도 좋다.



지난 8월, K-water 임직원 35명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봉사단 활동은 물 부족국 식수 개발사업을 위한 발걸음으로서 지역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글. 김영은 자료_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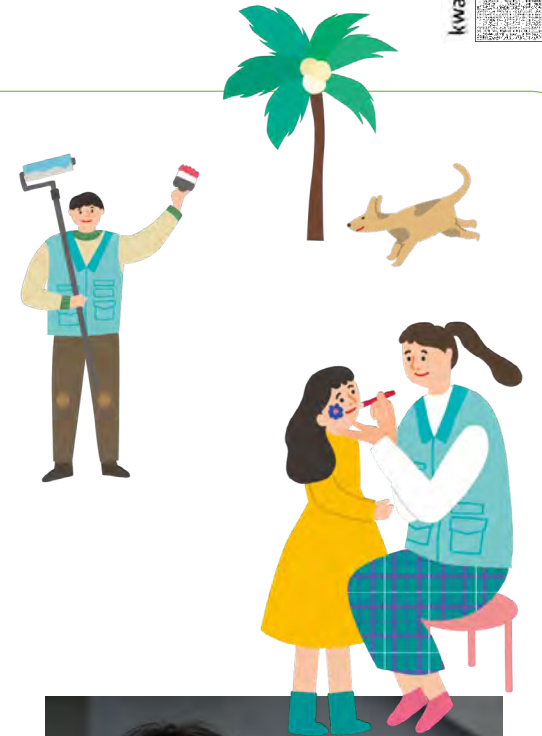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발걸음



말레이시아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

K-water 임직원 35명이 지난 8월 27일, 말레이시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9월 3일까지 진행된 총 8일간의 일정 동안 K-water 임직원들은 쿠알라룸푸르 및 오랑아슬리 원주민 마을에서 식수 개선 사업·환경개선 및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고아원 시설, 장애인 기관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다. 수도 시설 파이프 교체, 지붕 보수를 비롯해 건물 외부를 벽화로 꾸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플로깅 활동, 청소 등을 함께 하며 환경 개선에 힘썼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풍선아트와 비즈 팔찌 만들기, 한국 전통 놀이 등 교육봉사를 진행하며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지역주민들과 플라로이드 촬영 및 비눗방울 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K-water는 물 전문 기업으로서,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글로벌 물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물 환경 취약 지역에서 해외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발판 삼아, 오랑아슬리 원주민 마을 등에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직장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체력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게다가 최근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내 몸을 스스로 지키려 운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평소 태권도, 복싱 등 다양한 타격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소양강댐지사 4인방이 새로운 경험을 위해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다.

글. 문수민 사진. 김은주

나와 우리를 지키는 힘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K-직장인들의 내 몸 지키기

주짓수란, 일본의 전통 무술인 '유술(じゅうじゅつ, 쥬쥬츠)'이 브라질을 시작으로 서양으로 전파되면서, 발음이 변형되어 오늘날에 이르러 Jiu-Jitsu(주짓수)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 체험을 진행한 춘천의 한 도장은 브라질 주짓수를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브라질 주짓수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유명 격투가인 호이스 그레이스를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다. 요즘처럼 '묻지마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기에 자신을 지키는 호신 기술 하나 정도는 필수일 터. K-water 소양강댐지사 4인방도 위급 상황을 대비한 호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주짓수 체육관을 방문했다. 도장에 도착하자 신나는 음악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주짓수 체험 참가자는 소양강댐지사 운영부 이상현 사원, 홍성재 대리, 관리부 홍철호 선장, 그리고 녹조로 일이

바빠 리프레쉬가 절실했던 운영부 성한수 사원으로 꾸러졌다. 이번 체험은 몸풀기부터 기본 동작, 실제 위급 상황에 사용되는 공격 기술까지 주짓수 전문가인 신동우 사범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자유로운 동작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편안한 복장. 체육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옷부터 갈아입었다. 하나같이 검정으로 맞춰 온 드레스코드에서 그들의 팀워크가 엿보이는 듯했다. 준비를 마치고 몸풀기를 시작하자 참가자들이 평소 안 쓰던 근육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굳어 있던 근육이 풀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범님의 지도 하에 동작을 따라하다보니 어느 새 굳어 있던 몸이 움직이기 편한 상태가 되었다. 몸과 함께 마음도 풀리는지, 참가자들의 얼굴에도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설렘이 조금씩 비쳤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한대로!

“상대보다 내가 먼저 지쳐서는 안됩니다. 내가 지치기 전에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야 해요.” 신동우 사범은 뒤에서 들어온 공격에 대처하는 동작을 설명하며, 상대보다 내가 먼저 지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 몸에 힘을 빼 체중을 모두 상대방에게 전가시킨 뒤 상대가 힘이 빠졌을 때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공격이 들어온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이상현 사원과 홍성재 대리가 짝이 되고, 홍철호 선장과 성한수 사원이 짝이 되어 연습에 돌입했다. 먼저 이상현 사원과 홍철호 선장이 공격을 하고 홍성재 대리와 성한수 사원이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맡았다. 신동우 사범의 설명대로, 이상현 사원의 공격과 동시에 홍성재 대리가 온 몸에 힘을 빼자 정말 그의 체중이 고스란히 이상현 사원에게 전가되었다. 이상현 사원의 표정에는 힘겨움과 놀라움이 함께 내비쳤고, 홍성재 대리도 힘

을 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보였다. 처음해보는 동작이라는 어색함도 잠시, 참가자들은 어느샌가 수업에 몰입해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한창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 때쯤 신동우 사범이 다음 동작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익혀볼 동작은 ‘목 조르기에서 탈출하기’. 동작 설명을 위해 홍철호 선장이 신동우 사범을 도와 시범 조에 합류했다. 홍철호 선장이 누워있는 신동우 사범 위에 올라 타고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자 신동우 사범이 곧장 오른쪽 팔을 잡아 몸 전체를 제압했다. 순간적인 힘을 오른쪽 팔에 모두 모아 공격한 자의 몸 전체를 옆으로 제끼는 것이 이 동작의 핵심. 단숨에 제압당하는 홍철호 선장에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공격과 방어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진행되는 연습이지만 몸으로 부대끼며 진행되는 연습에 서로의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막을 수 없다면 빠르게 대처하기

‘호신(護身)’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지키다’는 뜻이다. 주짓수는 다른 운동에 비해 ‘호신’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누군가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일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번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런 점에서 주짓수는 비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운동이다. 적은 힘으로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작이 많기 때문이다. “작은 힘으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짓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성한수 사원의 말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전문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주짓수 체험은 원데이 클래스였지만, 참가자들이 배운 동작은 오랫동안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홍철호 선장

저는 평소에 수영과 크로스핏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주짓수를 권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된다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요즘 매체에 주짓수가 많이 보여서 어떤 운동인지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체험해보니 정말 즐거웠어요.



홍성재 대리

말로만 듣던 주짓수를 실제로 접해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즐거웠고요. 알려주시는 동작들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사범님께서 알려주시는대로 따라하니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딱딱 나와서 신기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한수 사원

이번 클래스에서 주짓수를 처음 해보았는데, 작은 힘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최근에 녹조때문에 계속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땀도 빼고 리프레쉬도 된 것 같아서 아주 상쾌합니다.



이상현 사원

평소에 복싱과 헬스, 태권도 등 운동을 다양하게 접했지만 주짓수는 처음 접해보요.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고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글. 오미영(닥터스 심리아카데미 대표원장)

출근만 생각하면 숨 막히는 나, 혹시 불안장애일까?



06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모호하고 중립적인 단서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신호로 인지할 수 있다.

09

최근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내담자 중에 “출근만 하면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요.” “회사에서 발표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할 때 긴장이 되고, 현기증을 느낄 때가 많아요.” 등의 상담 내용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일상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모호하고 중립적인 단서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신호로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과호흡, 불면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회사 생각만 하면 숨 막히는 느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자율 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상생활 루틴이 필요하다. 각성과 이완을 담당하는 자율 신경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두려움과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율 신경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 신경계는 몸을 긴장과 각성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 신경은 몸을 안정되도록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항상 과도한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 지나친 불안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휴식으로 긴장을 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한다. 승진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수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항상 불안감과 가까이에 있다. 사소한 실수로 질책을 들었을 때는 행여나 같은 실수를 할까 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 수시로 떠오르기도 한다. 특히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을 경우 회사 생활을 할 때 중압감과 부담감이 클 수 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압박감 없이 기분전환을 할 기회를 가져 부담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추천한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 것. 스스로에게는 채찍질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친절할 경우가 많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속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거리를 두고 관찰할 것.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할 거야”와 같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Self-talk를 수시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에게 “이번 주도 많이 애썼어. 이만하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며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이유 없이 삶을 무겁고 어둡게 만드는 불안감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지 않게 된다. 더 잘 해내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 불안감이 일상을 해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해한 하루를 만드는 쓰레기 OFF

늦은 더위가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다. 가을이 되면 들로, 산으로 피크닉이나 등산을 가는 일이 많아진다. 등산과 산책이 잦아지는 이 계절, 플로깅 챌린지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나가자.

글. 황혜민

산으로, 들로 외출이 잦아지는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다. 푸른 하늘과 흐드러진 갈대밭을 지나가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모른 척 지나치지 말고 플로깅 챌린지에 동참해 보자. 지난 2016년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Plocka upp'과 'Jogging'의 합성어로, 이삭을 줍듯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거나 걷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몇 해 전부터 알려지면서,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인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달리거나 걷다가 멈추어 쓰레기를 줍는 자세가 하체 운동인 런지나 스쿼트 동작과 비슷해 하체 근육 운동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실제로 피트니스 앱을 통해 30분 동안 조깅했을 때와 플로깅을 함께한 조깅을 했을 때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로깅을 하며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운 쓰레기는 조깅이 끝날 때까지 소지했다가 지정된 장소에 꼭 버리도록 하자.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쓰레기 OFF!

위 내용을 참고해 선선한 가을 날씨 속 조깅을 즐기며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 일상 속 쓰레기 OFF를 실천하고, 63페이지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0월 20일 **선물 발송일** 11월 10일경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즐겁게 건강해지기, 헬시 플레저



오늘도 헬스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주목할 것! MZ세대를 중심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뜻하는 신조어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떠오르고 있다.

글. 황혜민

최근 즐거운 건강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MZ세대 사이에서 '헬시 플레저'라는 긍정적인 신조어가 탄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헬시 플레저란, 높은 강도의 운동과 식단 조절이 아닌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신체·정신 건강관리법을 일컫는 용어로서 '건강(health)관리가 즐거워진다(pleasure)'는 의미를 담고 있다. SNS 인증과 경험, 재미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겨난 트렌드

중 하나다. 헬스장이 아닌 체감형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곤약 떡볶이, 두부 티라미수 같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인센스 스틱, 불멍, 물멍 등 멘탈 케어에 도움을 주는 명상 아이템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계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SNS 인증 등의 활동이 이와 같은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헬시 플레저의 잇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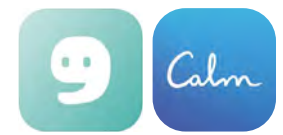
대체 식품

정제 밀가루 대신 콩이나 쌀을 활용한 면과 빵을 이용하는 등 대체 식품을 통해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게임 운동

체감형 게임을 통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어 헬시 플레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정 미션을 완수하면 보상을 받는 등의 자극은 운동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



멘탈 케어

캔들 워머, 인센스 스틱 등 명상 아이템을 활용은 물론 캄(calm), 마보 등 명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음을 훈련하는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FOCUS 1

수도요금 동결로 국민 부담을 줄입니다

K-water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걸음으로, 수도요금 동결을 선언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글. 김영은 자료. K-water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수도요금 동결 선언

K-water는 2016년 9월 수도요금 인상 이후 7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2년 더 수도요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한 것. K-water는 그간의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의미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이에 지난 9월 6일 수도요금 동결 선언식이 대전 본사에서 이뤄졌다. 이날 선언식에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K-water 노동조합, 기업 고객 등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윤석대 사장은 자리를 빌려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이 뜻을 모아

수도요금을 동결한다”라고 선언했다. 노철민 노동조합 위원장도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ater는 최근 수돗물 생산원가 상승이 전망되지만, 디지털 전환 등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위한 여력을 마련했다. ‘물’이라는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슬선수범하여 민생경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와 같은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민 부담은 줄이고, 자체 원가 절감을 실천하다

K-water는 이번 수도요금 동결 선언과 관련해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렸다. TF는 국내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내부 투자계획과 혁신 기반의 생산원가 절감 방안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요금인상이 아닌 원가절감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요금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뜻을 모았다.

이에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용수 수요 적기 대응 등으로 수도사업 매출액을 확대하고,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설가동 전력 요금과 약품비 등의 생산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K-water가 생산하는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가운데 요금 동결 선언은 지자체 수도요금 인상 요인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의 첫걸음을 떼다

기후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해진 지금,

K-water가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글. 김영은 자료. K-water

FOCUS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힘찬 도약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대체 에너지 중 하나로 수소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중 그린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K-water는 대량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고순도 물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성남정수장에 국내 최초 소수력(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어 내는 생산 실증시설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화에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그린수소 실증연구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그린수소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밀양댐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설도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산업계에 역사적인 첫 상업화 모델

K-water는 지난 9월 14일 성남정수장에서 실증 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린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상업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성남 광역정수장은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압을 활용하는 0.35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 2기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여 하루에 약 188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연간 약 69톤의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하루에 수소차 40대(승용자동차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K-water는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 구축을 시작으로 대수력 등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K-water News

1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노사 공동 양성평등 선언

K-water가 지난 9월 4일,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여 대전 본사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양성평등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언식은 전 임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평등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별의 구분을 뛰어넘어 동등한 대우 및 참여 기회와 권리 의무를 보장하고, 일과 삶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우수작 시상과 전시, 퀴즈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2



K-water, 'Crystal Drop Award' 아시아 최초 수상

K-water가 지난 9월 11일, 국제수자원협회(IWRA)가 수여하는 물 분야 최고 영예인 크리스털 어워드(Crystal Drop Award)를 아시아 최초로 수상했다. 크리스털 어워드는 국제수자원협회가 주관하여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물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K-water의 이번 수상은 아시아 기관 또는 개인을 통틀어 최초 수상으로 한국의 물관리 기술 및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물 분야에 있어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K-water 이음 장날 개최

K-water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13일, 대전 본사에서 댐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 장날'을 개최했다. 이날 장날에는 전국 각지의 농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사과, 포도, 표고버섯, 전복 등 농수산물 12개 품목이 판매대에 올랐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을 마련했다. K-water 또한 구매자로 참여해 4천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 후 지역사회에 전달하여 온정을 나눴다.

4



윤석대 사장,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면담

지난 9월 12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윤석대 사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석대 사장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 상황과 재건에 관한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K-water의 물관리 및 도시재건 분야 기술과 역량 등을 활용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water는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5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 개최

K-water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 양일에 걸쳐, 인천시 송도 경원재 엠베서더 호텔에서 메콩 5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했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메콩강 유역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으로서, 메콩강 유역의 물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 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를 주제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진행되었다.

6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점검 및 국민체감 혁신 다짐

K-water는 지난 9월 13일, 대전 본사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현안 및 민간 주도 성장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전사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여름 홍수기에 철저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점검했다.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향후 댐을 비롯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 지자체 지방차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규제혁신과 새로운 경영방향 등을 논의해 다양한 문제에 모두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영화

프리 철수리

감독 | 줄리 하, 유진 이
개봉 | 10월 18일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한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문힐 뻔했던 사건은 한 기자의 심층 보도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다. 아시안아메리칸 사회를 뒤흔든 '프리 철수리' 운동,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10년의 재판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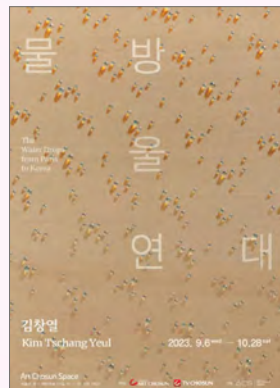
서기 26년, 제정 로마의 박해에 신음하는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귀족 벤허의 일대기가 펼쳐진다. 주옥 같은 대사와 음악, 가사, 멜로디로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2017년 초연과 재연을 거치며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등 총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데 이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벤허

기간 | 11월 19일까지
장소 | LG아트센터 서울



뮤지컬



전시

김창열의 물방울 연대(蓮帶):
The Water Drops from Paris to Korea

기간 | 10월 28일까지
장소 | 아트조선스페이스

'물방울 화가'로 불리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창열 작가의 개인전이 아트조선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작가가 파리 체류 당시 시작된 물방울 초기 작품부터 빛의 반사 효과로 인한 물방울 그림자가 두드러지는 말기 작품까지 한데 모아 전시를 개최한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한다. 140여년 전 개항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및 최고의 근대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시의 가장 화려하고 활력이 넘쳤던 거리를 재현한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기간 | 10월 22일까지
장소 |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축제

수놓은 문화로의 초대

완연해진 가을을 즐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리스트.

글. 김영은



K water

소양강댐
희망의 미래로!

www.kwater.or.kr/50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973년 10월 15일 준공

50번째
소양강댐 생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하는 이벤트

ITX경춘선 (용산-춘천) '23.9.1 ~ (3개월)

소양강댐 테마로 랩핑한 열차 타고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과거-현재-미래-50주년 파티존

소양강댐
50주년 열차

서울 청계광장 '23.10.9.~11.
춘천 상상마당 '23.10.13.~14.

대형 방울이 전시, 가수 경서 버스킹,
한정판 방울이 굿즈가 있는
소양강댐 50주년 기념파티에 초대합니다!

소양강댐
50쇼

춘천 '23.10.29.

K-water가 후원하는 춘천마라톤, 소양강댐
홍보부스에서 방울이를 찾아보세요!

가을의 전설
'춘천마라톤'

방송 일정 | *방송 편성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BS 지식채널e '23.9.14.(목)
문화와 추억이 담긴 소양강댐,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양강댐 이야기

SBS 꼬꼬무 '23.10.12.(목)
눈을 뽐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댐관리 이야기

TV조선 슈퍼콘서트 '23.10.14.(토)
소양강댐을 가득 채우는 정겨운
트로트 가락 (미스·미스터롯 출연)

JTBC 히든 히어로즈 '23.11.5.(일)
물관리를 책임지는 숨겨진 영웅!
K-water 직원들이 들려주는 물 기술

KBS 특집 다큐 '23.11.12.(일)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물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추억 소환’ 이벤트 당첨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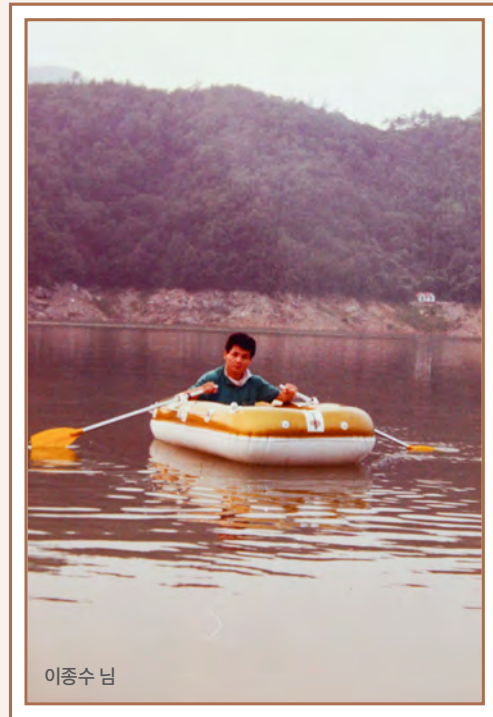
지난 9월호 이벤트로, 소양강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가족과 함께 소양강댐을 방문했던 사진, 지금과는 달랐던 소양강댐의 모습 등을 응모해주신 분들 중 5명의 당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소개합니다.



고제대 님

2015년 소양강댐에 근무할 때 사진입니다.
그해 봄 가뭄이 극심하여 댐수위가 E.L154m 근방까지
하강하여 발전을 정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취수구의
상단고가 E.L150m이니, 취수구 입구는 소용돌이가
발생했고요. 선착장 유람선은 승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유람선을 타기 위한 계단을 당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뭄에 수위가 내려간 적이 없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임시로 철계단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영구계단을 설치한 기억이 납니다. 사진은 당시 취수구
입구(선택 취수 건설 중) 사진입니다.
소양강댐 하면 이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제대 님



이종수 님

지금부터 약 35년전 여름,
소양강댐 앞 강에서 빌려온 고무튜브를
노 저으며 물살을 힘차게 누비던 모습입니다.
저 많던 머리 술이 지금은 다 빠지고
이마가 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때가 부러우면서도 아쉽네요.

이종수 님



김현숙 님

1989년 8월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힐겸
가족동반으로
소양강나들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열 맨우측
여성이 본인입니다.
제 품에 아기가 지금은
4살된 딸을 두고 있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김현숙 님



김해란 님

2012년 2월 25일 겨울,
소양강댐에 찍었으니 벌써 11년전의
일이네요. 시댁이 강원도 원주예요.
어머님이 겨울에는 농한기라 일이 없고
무료하신 것 같아 바람 쐬러
춘천에 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소양강댐 설명도 해주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해란 님



심지현 님

사진 뒷면에 1972년 11월 14일
‘소양강 다목적댐 현장 방문 기념’이란
도장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4살 때인 거
같은데,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이 너무 젊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시 근무하던 분들과
가족들이니 것으로 추정되요. 왼쪽에서 뒷줄
다섯 번째가 저희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택에 거주하실 때 저희는 춘천이 고향이라
 시내에서 살았는데요. 소양강댐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당시에 수고하셨던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8090이 되셨을 테니, 50주년에 대한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심지현 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퀴즈에 참여하고 구독신청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2

소양강댐에서 취수한 농업용수는 온도를 높인 뒤 공급된다?



HINT 소양강은 고산지대에서 바로 내려온 물이 흘러서 수온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소양강에서 취수한 농업용수는 바로 공급되지 않고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우두온수지에서 임시로 물을 가두어 자연광으로 온도를 높인 뒤 공급된다. 한편, K-water에서는 이러한 낮은 소양호의 수온과 기온차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설비를 소양강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1

소양강댐 준공 당시 현장에는 살모사가 많이 출몰했다?



HINT 소양강댐 준공은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언론사들이 공사 현장을 다녀간 뒤 가십 기사를 두루 다뤘다. 그 중 하나로 '소양강댐은 0의 소굴'이라는 기사가 강원일보 1면을 장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안경모 사장은 직원 숙소 주변에 백반을 뿌려 0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소양강댐 공사가 진행되었다.

3

소양강댐 건설 이전부터 닭갈비와 막국수는 춘천의 대표 음식이었다?



HINT 소양강댐 건설 당시 지역민들은 전국에서 몰려든 인부와 공사 현장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 향토 음식들을 팔았다. 이 중 닭갈비와 막국수는 큰 인기를 끌어 오늘날 춘천의 대표 음식이자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8년에 막국수 축제와 닭갈비 축제를 통합 개최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은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는 매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하였다.

구독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

- ① 웹진에 접속
- ② 이벤트 팝업창 클릭
- ③ 구독신청 작성 시 정답 응모



웹진 바로가기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10월 20일
발송일 11월 10일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재도약’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쌓은 것은 123미터의 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열망이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양강댐을 만들었고 소양강댐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소양강댐이 국민안전을 위해 다시 희망을 채웁니다.

내 삶을 바꾼 물길 소양강댐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1973년 10월 15일 준공



축하합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 9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9월호 '자동차 OFF' 챌린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성 가득한 인증샷을 소개합니다.
10월호 '쓰레기 OFF' 챌린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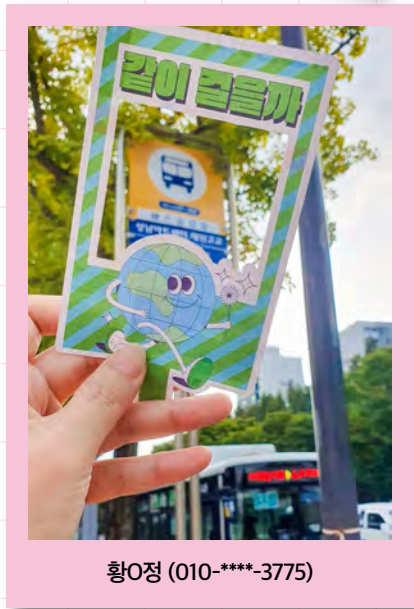
이O후 (010-****-7172)



강O국 (010-****-1007)



김O은 (010-****-7713)



황O정 (010-****-3775)



송O영 (010-****-8736)



김O만 (010-****-7696)



김O연 (010-****-8520)

웹진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슈퍼콘서트 10명

이O우 010-****-1098	서O석 010-****-2891
이O주 010-****-0076	송O경 010-****-4009
전O열 010-****-4491	김O장 010-****-0579
권O오 010-****-1866	강O숙 010-****-0956
유O선 010-****-0469	김O희 010-****-9969

#kwater소양강댐50주년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gusle1813 | @ag.s.tar | @rumble_turtle | @rachel201607 | @sy.aaa1 | @44.bool |
@jh910830 | @walwal0421 | @seunghyeon2.lee | @seowoo7779



이벤트 선물 발송일 10월 10일경

※ 10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방울이와 함께 하는 쓰레기 OFF 챌린지

산책, 조깅, 등산 등을 즐기기 참 좋은 이 계절, 가을. 환경보호는 물론 더욱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플로깅 챌린지에 동참해 보자. 환경과 건강 모두 만족시키는 건강한 챌린지에 매료될 것!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쓰레기 OFF!

48페이지의 '오프챌린지' 내용을 참고해 가을 날씨 속 조깅을 즐기며 플로깅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 일상 속 쓰레기 OFF를 실천하면서, 위의 방울이 토퍼를 이용해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명

참여 방법 QR코드를 통해 인증샷 남기기

접수 마감일 10월 20일 발송일 11월 10일경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트퍼링 이벤트

놀면 뭐하니?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프사
지금 바로 만나기!



최신 유행 이야기부터 놓쳐서는 안 될
꿀팁 가득한 다양한 콘텐츠의
K-water SNS와 함께해요~!



유튜브 www.youtube.com/kwtertv
방울이 서핑 실력 ㄷㄷ | [시즌2 EP13 - 워터포스 가디언]
 귀여운 아기 서퍼로 변신한 방울이! 사회호의 아름다운 수변을 활용한 친환경 첨단
 MTV 산업단지의 인공 서핑장에 등장한 방울이가 지친 일상을 떠나 힐링을 선사하
 며, 파도에 몸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서핑 실력을 선보인 방울이의 웨이브파
 크방문기에 주목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방울이 #워터포스가디언 #서핑 #서핑초보 #서핑입문 #힙캥스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blog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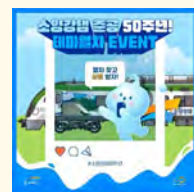
명 때리는 거 아니
마음의 양식 쌓는 중이야
 #방울이 #독서 #가을 #독서의계절 #마음의양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소양강담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기적 #망가지
 #게으른하루



#준공50주년 #테마열차
 #추천가는기차



#소양강담50주년
 #이벤트 #7경제발전의초석



#행운의편지 #방울이부적
 #푸른방울이사랑해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는데요. 준공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이 생기
 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볼까요?
 #소양강담 #추천 #다목적담 #수려발전 #관광지 #휴양지

소양강담 준공 50주년

웹진에
숨어있는
방울이를
찾아라!

10월호 웹진 속 숨어있는 방울이를 찾아보세요!

Hint

소양강담 준공 50주년
 피켓을 들고 있는 저를 찾아주세요~
 저를 찾아 주시는 10명에게
 향긋한 커피 ☕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숨어있는 방울이 찾기
 이벤트 참여 방법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트콘 10명
 응모방법 소양강담 준공 50주년 특집이 담긴 10월호 웹진을
 읽고 숨어있는 방울이를 찾아 클릭하면 자동응모!
 접수 마감일 10월 20일 발송일 11월 10일
 ※ 10월호 웹진 오픈일은 10월 5일입니다.
 ※ 11월 15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2-6731-0785로 전화주세요.



웹진 바로가기